소원하라! 단 겹치지만 않게

(열왕기상 4:1~34)

20.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2.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르요
23. 살진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24.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6.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27.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소원하라! 단 겹치지만 않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소원하라! 단 겹치지만 않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기계발서의 모든 주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소원을 이루는 법입니다.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자기계발서를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자극적인 모토를 내 걸고 있는데 “왜 1% 밖에 안 되는 사람들

이 전 세계의 96%의 돈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도 전 세계 부의 96%를 장악하고 있는 1%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한 마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1%의 인간들이 96%의 부를 끌어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부를 명확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생각하다보면 실제로 부를 가져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온 책 중에서 금년 1월에 출간된 비슷한 맥락의 "3개의 소원 100일의 기적"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소원을 뚜렷하게 부각시킬 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잠자기 전에 1분 동안 3개의 소원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잠재의식에 소원을 받아들이게 하고 일깨워진 잠재의식의 능력을 통해 현실에서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계발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들을 분명하게 알아내고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신 모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통해 어떠한 사상이든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공백이 있게 만드셨고, 그 공백은 하나님 맞춤형사이즈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메워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진공상태의 공백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흡입력이 생기게 됩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이 흡입력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표현하였고 '3개의 소원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는 잠재의식의 능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외에 모든 철학, 문학, 예술, 사업, 정치 등도 진공상태의 마음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려는 본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시크릿도 성서의 진리의 일부를 훔쳐본 것이나 다름없고 영적으로 성서의 진리를 불의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富)를 마음으로 생각하면 부가 끌어당겨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망할 뿐이고, 다만 책에서는 그 원리만을 빼내어 적용한 것입니다. 끌어당김은 이름을 마음에서 붙잡을 때 마음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를 마음에서 생각하면 그 부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존재가 끌어당겨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민에게도 소원은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에게 있어서의 소원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아버지 없는 천애고아들과 소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선민의 소원의 법칙은 오직 한 가지인데 소원을 겹치게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고 싶은 법칙에 대한 책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그러한

책들은 필요가 없는데 타락이전의 상태에서는 소원은 가지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자유의 표현이고 선택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소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타락 후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 하나의 조건이 구비되면 소원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겹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겹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까 염려하며 새 법칙을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겹치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소원을 하면, 내가 소원하는 실존적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나와 관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소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원을 발동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소원이 발동되고 우리는 후발주자로 소원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과 겹쳐서는 안 되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과 내 소원이 겹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빼앗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지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선악과의 시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소원을 인간이 가지게 되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발동되어 진행되는 하나님의 소원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소원과는 겹치지 않는 나만의 소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럴 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인간의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것이 소원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겹치지 않는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살피지 않아서 소원이 겹치고, 하나님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가 소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원은 하면 할수록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앞서 말한 책들의 법칙을 따라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매를 버는 것이고, 소원을 이루고도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치하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태평성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도가 정비되고 나라 안의 통치체계가 갖추어지면서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위상이 근동지방에서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는데 태평성대에 대한 상징이고, 근동지방의 어떤 지혜 자들도 따를 수 없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단 한 가지도 솔로몬이 소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장에서 일천 번제를 통해 솔로몬의 소원이 나타났는데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소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태평성대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태평성대를 소원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소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루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 가지셨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태평성대는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기에 앞서서 이미 발동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소원과 겹쳐서는 안 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절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라는 말과 25절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이 지상에서의 삶이 태평성대하고 낙원 같이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항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과 겹치지 않는 소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원의 영역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소원하지 않아도 백성이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내가 소원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타락 전에는 에덴으로 나타났고, 타락 후에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통치하의 태평성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나 솔로몬의 태평성대의 시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땅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과 겹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지우게 됩니다. 반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대해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다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일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순간마다 먼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늘로 향한 우리의 소원을 솔로몬이 일천 번제와 듣는 마음을 바라는 기도로서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까?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구비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순간에도 일천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통하여 백성들에 대한 마음들을 양파껍질 벗기듯이 벗겨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이 될 때까지 번제가 드려질 때마다 그 마음을 죽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한 대상으로 보이기를 바랐던 소원이 일천 번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세상에 사로잡혀 소원하게 된 죄적 체질과 마음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상황이 치열한 왕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붙박이로 주어진 나의 속성으로 지혜를 번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해당되는 과제와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라이브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다른 대상들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서 만남이 삶의 현장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셨던 소원을 겹치지 않고 피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소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 스스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무조건 이 땅을 향해 소원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이 땅에 대한 소원을 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들은 그런 상태의 삶을 살면서 소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매를 버는 길일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과 겹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원을 묵살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지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따라한 결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정말로 유익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교민들 중에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동성애에 빠지게 되어서 그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수준 낮은 대학에 갔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겠다는 마음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올바른 휴머니즘을 삶에 실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성인인체하는 자들의 망동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 내용 자체가 우

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유전 죄가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세상을 소원하고,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과 겹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소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와 듣는 마음을 소원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입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과 겹칠 것입니다.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토록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과 겹쳐지도록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당면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가동되고 있음을 믿고, 내 소원은 발동 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주님을 따라 승천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를 대면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소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대통령과 왕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만이라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마음에서 태평성대를 꿈꾸지 마시고, 하늘의 아버지만을 십자가를 통하여 꿈꾸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소원하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소원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 소원을 죽임으로서 하나님과 겹치지 않는 나만의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